

광주 주택 인허가 2098건에 착공은 140건

국토부 3월 주택 인허가·착공·분양·준공 실적

시장침체에 건설사 사업 보류...전년보다 착공 88% 감소 전남 인허가 줄고 착공 늘어...광주·전남 올 2672가구 분양

광주·전남 지역 주거용 건축물 인허가 면적이 작년보다 늘었지만 착공면적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용 건축물 가운데 아파트도 인허가면적이 늘고 착공면적은 줄었다.

2일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3월 전국 주택 인허가·착공·분양·준공실적에 따르면 광주 지역 인허가는 2098건으로 전년동월 484건에 비해 333.5% 증가했다. 지난1~3

월 누계도 3077건으로 전년같은기간 1221건에 비해 152.0% 증가했다.

광주지역 인허가는 지난해 주택시장 호조로 기본설계·지자체 협의 등 인허가 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장에서의 인허가 증가 영향으로 늘어났다.

착공은 140건으로 전년동월 1122건에 비해 87.5% 감소했고 분양은 1378가구로 전년 1550건보다 11.1% 감소했다.

착공과 분양실적이 감소한 것은 주택시장이 침체기로 접어들면서 건설사들이 사업을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준공은 1379가구로 전년 916가구에 비해 50.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 지역 주택 인허가는 1255건으로 전년 동월 1904건보다 34.1% 감소했으며 착공은 2385건으로 전년 562건에 비해 324.4% 증가했다.

분양은 1294가구로 전년 190가구에 비해 581.1% 증가했으나 준공은 865가구로 전년 1488가구보다 41.9% 감소했다.

이와관련 지역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주택시장이 호조를 보일 때 인허가절차가 들어갔던 주거용 건축물들이 1분기에 인허가를 받고도 착공되지 못한

것으로 해석된다”며 “부동산 경기하락과 분양 실적 저조를 우려하는 분위기에 이 같은 추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전국적으로 1분기를 기준 주택인허가물량이 작년보다 37.2% 늘었다”면서 “작년 주택시장이 호조를 보이면서 당시 기본설계나 지방자치단체 협의 등 인허가 절차가 들어갔던 사업장에서 실제 인허가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실제 착공면적은 작년보다 0.3% 증가한 2843만2000㎡(4만7703동)였으며 수도권이 1.3% 감소한 1270만4000㎡, 지방은 1.6% 늘어난 1572만8000㎡였다고 밝혔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1978.15 (-16.00) ↑ 금리 (국고채 3년) 1.47% (+0.01)

↓ 코스닥 690.27 (-9.50) ↓ 환율 (USD) 1137.80원 (-1.50)



광주은행 중금리 대출 1000억원 돌파

JB금융그룹 광주은행(은행장 김한)이 중서민들의 금융으로 해소를 위해 연 초부터 판매한 중금리대출 상품이 판매 개시 2개월 만에 500억원 돌파에 이어 4개월이 된 지난 4월 29일 1000억원을 돌파하는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중서민을 위한 대표 상품으로는 KJB 새희망플러스대출, KJB정금다리론 등 정부 정책의 서민금융상품을 비롯해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급여소득자를 위해 출시된 '직장인퀵론', 소득이나 보유자산이 없는 주부들을 위한 '주부퀵론', 복잡한 서류 없이 필요자금을 빠르고 간편하게 지원하면서 연 25% 내외의 제2금융권 고금리대출을 6%~14%대

의 중금리로 전환할 수 있는 '스마트퀵론' 등이 있다.

영업전략본부 송중옥 부행장은 “중금리대출은 간편하고 신속하게 대출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한도가 부족한 고객에게 추가 한도 부여와 함께 제2금융권과 대부업체 이용 고객들이 은행을 통해 금융비용과 개인신용등급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장점이 있다”며 “광주은행은 적극적인 중금리대출 지원을 통해 중서민의 고금리 대출 이용에 따른 이자부담 경감과 새로운 시장 개척을 바탕으로 소매금융 전문은행과 지역은행으로서의 역할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광주·전남 주거급여

LH, 193억원 지원

연말까지 노후 주택 보수 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정건기)는 올해 관내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사업에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난 193억원을 투입한다고 2일 밝혔다.

주거급여란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광주·전남 27개 시·군·구와 위·수탁 협약을 하고 올해 국토교통부와 시군구로부터 193억의 사업비를 교부받아 시행한다.

최대 3만2000가구에 대한 주택개량 및 사후관리 등을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한다. 지원대상은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43% 이하이면서 부양 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이다.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차료를 지불하는 임차가구도 지원 대상이다. 기존 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가 임대인에게 지불하는 실제 임차료를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한다.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 가구에겐 주택개량을 지원한다. 기존에 주거급여를 받던 가구는 별도 신청 없이 LH가 실시하는 주택조사에 응하면 된다.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고 싶은 가구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해 소득·재산·주택 조사를 거쳐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주택조사 내용은 실제 거주 여부, 임대차계약관계, 주택현황(유형·시설·상태 등) 등을 살펴본다. 이와 별도로 장애인 가구에 대해서는 최대 380만원까지 주거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를 추가 지원한다. 김대성기자bigkim@



오월 황금연휴 지역 백화점들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사진은 롯데백화점광주점의 비누카네이션 만들기 체험 모습. (롯데백화점광주점 제공)

우주 체험·비누꽃 만들기...백화점, 놀이공원 안부럽네

유통업계, 가정의달 체험형 이벤트 풍성

올 황금연휴 지역 백화점의 화두는 '체험'이다. 가족의 달을 맞아 가족 단위 소비자들이 즐기면서 쇼핑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행사가 진행된다.

(주)광주신세계(대표이사 임훈)는 오는 5일까지 백화점 1층 시즌이벤트홀에서 '골드 키즈 기프트 페어'전 행사를 진행한다.

특히 고객이 참여하고 흥미를 끌 수 있는 '체험형 마케팅'을 준비해 눈길을 끈다.

'신세계 카니발'에서는 고객들에게 헬륨 풍선과 스티커를 제공해 마치 놀이동산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도록 백화점 실

내 분위기를 연출했고 뽀뽀로 음료와 팝콘을 제공한다.

또 '우주 과학 체험전'에서는 우주에 대한 호기심과 상상력을 길러주는 여러 가지 이색 체험을 할 수 있다. 어드벤처 존에서는 우주 조종사의 회전 및 움직임 훈련을 직접 체험할 수 있으며, 로봇팔 작동, 회전 감각 훈련, 국제우주정거장 생활관 등을 체험할 수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에서는 황금연휴부터 스승의 날(15일)까지 '귀여운 토끼 미피와 친구들' 포토존을 열고 사진 촬영후

SNS 업로드 고객께 선물을 증정한다.

오는 7일 1층 정문에서 어버이날 '비누꽃 카네이션 바구니' 만들기 이벤트를 준비해 당일 5만원 이상 구매고객 대상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어버이날에 정성을 담은 선물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롯데아울렛 수완점에서도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제8회 '수안 호수공원 가요제'를 개최한다. 14일 토요일 오후 6시~9시 수안 호수공원 무대에서 진행되며, 관람고객을 대상으로 당일 행운권 추첨을 통한 선물도 증정한다. 5월 11일까지 접수기간이며, 062-616-2040~3으로 접수 및 문의하면 된다. /오광록기자 kroh@

늦깎이라 해도 좋다! **대학생**이라고만 불러다오!

오늘부터 **대학생**

탁재훈 박나래 장도연 장동민

CHANNEL 매주 토요일 밤 11시 www.ichannelA.com 채널A